



貴社는 지금 몇시입니까?

기승을 부리던 폭염도 한 풀 꺾이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어처구니 없고 짜증나는 일이 많아 어수선한 시절이지만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사는 길이 건강유지에도 좋을 듯하다.

중국 명산인 황산에 가면 우리나라 1천원 지폐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천원권 한 장이면 모자, 배낭, 등산용 지팡이 등 못살것이 없고 간단한 우리말은 현지어가 되다시피 됐다. 관광수지 적자현상이 걱정되긴 하지만 요즘 동남아를 비롯, 세계 곳곳의 명소에는 한국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지붕이라는 융프라우 관광열차에 한국어 방송이 등장한지 오래 되었으며 정상 휴게소에서는 한국산 라면을 우리 입맛에 맞게 먹을 수 있다. 미국 LA나 뉴욕, 호주의 시드니나 브리스베인에 가면 어느 국내 명승지와 다를 바 없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게 된다. 상하이 공항은 한국산 디지털TV가 석권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국내전자회사의 전시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일본 돗토리시와 요나코 시내의 교통표지판에는 아예 한글이 병기되어 있다.

모스크바 변화가 제일 좋은 곳에는 삼성전자의 광고판이 서 있으며 LG다리로 불리우는 다리전체에 LG휴대전화 광고판과 깃발이 촘촘히 꽂혀있어 보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코펜하겐 왕실광장에는 상업광고가 금지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삼성전자 광고판만 자리잡고 있다. 터키의 경우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내륙지방 소도시를 찾아가도 한국인이라면 형제(?)처럼 대하며 한국을 선진국으로 부르는데 인색하지 않다.

1인당 GNP가 5만달러를 훌쩍 넘어선 노르웨이 피요르드 관광선에서 한국어 안내방송을 듣는 것 또한 기분좋은 일이다. 세계10위의 경제대국, 6·25동란이후

고유가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인해 경기침체 여파를 심하게 받는 중소기업 중에서 특히 인쇄업은 타격이 더 크다. 그런데도 인쇄요금은 10년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 인쇄업계의 시계바늘은 멈춰선지 오래인 듯 하다. 일부 인쇄사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가격제시가 쉽지않은 실정이며 상당수 인쇄사들이 주는대로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불과 50년 동안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성장한 나라, 교육수준이 높고 일에 열성을 지닌 부지런한 국민,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임에 틀림없다.

이런 생각만하면 가슴 뿌듯하고 어깨가 으쓱할 일이지만 뭔가 불안하고 미흡한 면이 적지않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유가. 3년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30달러를 밀돌던 두바이유가 70달러를 넘어선데다가 환율인상, 생산원가 상승으로 국민생활을 위협하면서 기업의 목을 조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다. 경기침체 여파를 심하게 받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인쇄업이 받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인쇄요금은 10년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 인쇄업계의 시계바늘은 멈춰선지 오래인 듯 하다. 일부 인쇄사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가격제시가 쉽지않은 실정이며 상당수 인쇄사들이 주는대로 받는(?) 부끄러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도 하다.

역사(?)속의 인쇄요금으로 현재를 살아가지가 버거우며 미래를 설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 경제대국 10위인 현재시간에 맞는 인쇄요금 체계로 국제무대에 나서야 할 때이다.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찾는 사람에게 길이 나타나게 될 것은 정해진 이치이기도 하다.

오세익 편집주간